

1920년대 매체의 대중화와 만화

— 1920년대 초, 『동아일보』와
『동명』의 만화를 중심으로 —

서은영*

1. 서론
2. 시사만화의 공적 텍스트로의 편입
3. 주간지 사회면의 가십화
4. 표상된 이미지로 폭로되는 문화정치
 - 4.1. 문화정치에 은폐된 민족적 차별
 - 4.2. ‘순사’로 표상되는 문화 정치의 희화화
5. 결론

국문요약

본고는 시사만평이 대중 저널리즘에 유입된 과정을 식민지 시기 민간 언론의 형성과 대중화 기획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 만화가 서서히 공적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1910년대 저널리즘의 만화계재는 여전히 열악했지만,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룸으로써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만화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매일신보』에서 접한 만화에 대한 경험과 1919년 이후 일본의 통치정책의 전환이 맞물려 1920년대는 드디어 식민지 조선에서 만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김동성을 기자로 임명하고 최초로 만평란을 저널리즘에 고정시킨 『동아일보』와, 사회 문제를 만화

*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박사수료.

로 재현한 『동명』이 그것을 주도해 나갔다. 1909년 『대한민보』의 ‘삽화’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시사만평이 『동아일보』와 『동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당대 저널리즘을 이끈 지식인들의 식민지 정치에 대한 인식을 만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동시에 신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만화가 어떻게 정견을 형성해 나갔는지 고찰하고 있다.

(주제어 : 만화(카툰), 만평, 『동아일보』, 『동명』, 표상, 이미지, 순사)

1. 서론

만화는 산업과 과학의 발달로 이루어낸 근대의 산물이자, 체현된 근대성이 발현되는 대표적인 시각예술이다. 만화가 저널리즘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인쇄술의 발달을 전제해야 하고, 시각적 재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09년 『대한민보』의 ‘삽화’는 “대한민국 최초의 만화”라는 의미를 넘어, 근대성이 발현된 장르의 출현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¹⁾ 이런 만평이 1910년 한일병탄의 역사적 부침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하다가 다시 등장한 것이 바로 1920년대 이다. 물론 1910년대에도 만화는 게재되었다. 신문관이 간행한 『붉은저고리』와 『아이들보이』, 『새별』에는 ‘다음엇지’라 하여 2컷 이상으로 된 만화를 게재했다.

1) 1909년 『대한민보』의 ‘삽화’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인 ‘삽화(illustration)’와는 변별된다. 『대한민보』에 게재된 ‘삽화’는 이도영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화를 말하며 주로 정치·시사적인 것을 풍자한 만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당시에 통용되었던 용어인 ‘삽화’로 쓰고자 한다. 조선의 근대 인쇄문화의 형성과 그에 따른 ‘삽화’의 등장과 용례에 대해서는 서은영, 『근대 인쇄문화의 형성과 『대한민보』 ‘삽화’의 등장』, 『우리어문연구』 제 44호, 2012.9 참고.

잡지의 특성상 만화는 주로 아동을 주인공으로 하며 가벼운 웃음을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했다. 이는 『대한민보』의 만평과는 다른 것이었으며, 식민지 조선에서의 오락만화 혹은 아동만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다. 그러나 『새별』로 갈수록 ‘다음엇지’의 게재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그 이후 1910년대 조선인이 발행한 잡지에는 더 이상 만화가 게재되지 않았다. 1910년대는 주로 『매일신보』에 의해 만화가 선보였지만, 수(數)적으로도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양적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1910년대 『매일신보』에 게재된 만화를 ‘시사만평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한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서양 신문에 실렸던 만화를 전재(轉載)하긴 했으나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내 정치 사안에 대한 만평을 싣는 것에는 주저했다. 즉, 1910년대 저널리즘의 만화게재는 특정 양식이 지속되지도 못했고 여전히 열악했지만, 다양한 주제와 양식을 폭넓게 게재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만화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신문관 출판사의 ‘다음엇지’와 『매일신보』에서 접한 만화에 대한 경험과 1919년 이후 일본의 통치정책의 전환이 맞물려 1920년대는 드디어 식민지 조선에서 만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3.1운동에서 확인한 불특정 다수의 군집의 역동성은 이것을 어떤 형태의 주체로 구성하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잠재된 욕구의 분출이 가져다 준 언로(言路)의 해방은 은폐된 통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언론의 자유라는 일제의 정책과 맞물려 식민지 조선에 매체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 이후의 새로운 주체를 구상해 나간 조선의 지식인 집단은 대중의 취향과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문화 장(場)을 재편해 나갔다. 특히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유인물과 격문, 삐라, 신문 등과 같은 근대적 인쇄매체의 역할이 컸다. 천정환은 이러한

격문과 유인물 등이 민중의 손으로 직접 제작된 '대항'미디어로서, 주체의 글쓰기와 재현의 양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²⁾ 민중의 대항 미디어 가운데 그림(만화) 역시 정치적 소요를 재현하는 소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³⁾ 인구의 90%이상이 문맹이면서도 '3월 1일'의 소요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데에는 그림의 시각성 역시 고려의 대상이었다. 한편, 풍자와 유머를 생략적으로 지닌 만화는 이미 서구에서도 기술의 발달이 야기한 대량생산과 유통, 소비라는 '알파한 상술'에도 적합한 장르로 이용되기도 했다. 인쇄기술의 발달에 의한 대량생산과 규격화, 그로 인한 획일적 소비가 가능한 시기, 그 시기의 도래와 형성이 1920년대 대중신문의 창간이라 할 수 있다. 3.1운동을 통한 정치적 경험과 만화의 상업성의 결합은 '독자'로 호명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인들을 독자로 포섭하기 위한 대중 저널리즘의 노력들에서 만화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했다.

본고에서는 시사만평이 대중 저널리즘에 유입된 과정을 식민지 시기 민간언론의 형성과 대중화 기획과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에서 만화가 서서히 공적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김동성을 기자로 임명하고⁴⁾ 최초로 만평란을 저널리즘

2) 천정환, 『소문·방문·신문·격문: 3·1운동 시기의 미디어와 주체성』, 『한국문화연구』36, 2009. 136-137쪽.

3) 서구에서도 카툰은 시사와 종교 문제를 목판화로 찍어낸 중세의 '전단지'의 형태에서부터 시작했다가 공개처형을 이용한 산업의 성장으로 상업화되면서 대중화되었다. 로저 새빈, 『만화의 역사』, 글논그림발, 2002, 11-12쪽.

4) 1920년대 만화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점마다 '김동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는 만화사 연구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제국일본의 민간지 허용으로 가장 먼저 창간된 『동아일보』에 게재된 첫 만화의 작자도 그였으며, 1924년 식민지 조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코믹스(Comics) 역시 그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시사주보를 표명하며 타블로이드 판으로 발행된 『동명』의 창간호에서도 김동성의 만화가 꾸준히 실리고 있었다.

에 고정시킨 『동아일보』와, 사회 문제를 만화로 재현한 『동명』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09년 『대한민보』의 ‘삽화’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시사만평이 『동아일보』와 『동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당대 저널리즘을 이끈 지식인들의 식민지 정치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동시에 신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만화가 어떻게 정견을 형성해 나갔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⁵⁾

2. 시사만평의 공적 텍스트로의 편입

1920년 4월 1일 창간한 『동아일보』는 1917년 『매일신보』에 회고만화를 게재한 고희동과 1919년 12월 22일 『매일신보』에 『시절만화』를 게재했던 김동성을 정식 기자로 임명했다.⁶⁾ 대중신문을 내세운 『동아일보』가 창간호부터 그들을 기자로 임명한 사실은 『동아일보』의 지면 구성에 대한 고심을 보여준다. 특히 김동성의 출현은 만화사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동성은 1919년 12월까지 『매일신보』에 시절만화를 게재하며 “푼취(punch)화가”로 명망을 얻고 있었다.⁷⁾ 『대한민보』에 ‘삽화’를 게재한 이도영을 비롯하여, 신문관 간행 잡지에 게재된 ‘다음 엇지’와 각종 도상들을 그렸던 안중식과 조석진, 그리고 고희동에 이르기까지, 그간 조선의 신문·잡지에 도상을 도입하거나 만화를 게재했던

5)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거의 동시기에 창간되긴 했으나 『조선일보』의 만화게재는 그보다 훨씬 뒤인 1924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6) 『기자명단』, 『동아일보』, 1920.4.1.

7) 『Punch』는 1841년 영국에서 창간된 잡지에서 나온 단어로, 주로 중산층을 독자 대상으로 하여 정치적 캐리커처로 풍자적 내용을 매달 출간했다. 로저 새빈, 김한영 역, 『만화의 역사』, 글논그림발, 2002, 14쪽.

작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폰취 화가”로 불린 것은 김동성이 최초였다. 김동성이 자신의 작품을 처음으로 매체에 게재한 『신한민보』에서부터 그가 그린 그림의 문체는 『펀치』에 게재되던 만화의 범주 안에 드는 것이었다. 이는 그가 데뷔 당시부터 만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출발했음을 방증하며, 『매일신보』가 이것을 기사를 통해 공인하는 과정을 통해 김동성은 ‘폰치(만화)화가’라는 명명으로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⁸⁾ 1862년 일본에서 『재팬펀치』가, 1874년 『폰치』가 간행된 이후,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는 “펀치(Punch)”라는 이름의 잡지 간행과 그런 류의 잡지에 게재되는 만화가 만연했다. 일본에서 잡지마다 ‘폰치’라는 명명을 했다는 점은 ‘폰치’가 하나의 양식으로 고착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한다.⁹⁾ 그러나 1800년대 중반부터 이미 만화가 그려진 일러스트레이션 신문·잡지가 성행했던 일본이었지만, 『경성일보』의 산하 조직이었던 1910년대 『매일신보』에서도 만화를 자주 게재했던 것은 아니었다.¹⁰⁾ 또한, 김동성이 『매일신보』를 통해 “폰취화가”라는 공식적인 명명을 얻긴했으나 『매일신보』의 만화게재는 여전히 부진했다. 김동성이 『시절만화』라는 명명으로 게재하긴 했지만 일회적인 것에 그쳤

8) 1917년 『신한민보』에는 “화가 김동성군 筆”이라고 적혀있지만 그의 그림은 만화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또한 귀국 직후인 1918년 『매일신보』에는 그를 “폰취작가”로 명명하고 있다. 김동성 귀국과 만화 게재에 관한 내용은 서은영, 『한국 ‘만화’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언』, 『인문콘텐츠』 제 26호, 인문콘텐츠학회, 2012.9. 118-120쪽.

9) 서은영(2012), 위의 논문, 119쪽.

10) 180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던 일본의 만화란 주로 시사적인 내용을 풍자하고 한 컷 형식을 한 카툰이었다. 아무리 만화라 할지라도 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매일신보』에 이제 막 통치를 시작한 나라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풍자하는 내용을 게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1910년대 『매일신보』의 만화는 주로 조선의 풍속을 관찰하거나 근대 문물에 당황하는 조선인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에 게재된 만화의 내용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을 뿐이었다. 1910년대는 만화 게재가 여전히 미진한 가운데 김동성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대 초반에 매체 창간과 더불어 매체 안에 만화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만화가 공적 텍스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역시 『동아일보』의 김동성의 채용이었다.¹¹⁾ 『동아일보』가 김동성을 기자로 채용함과 동시에, 창간호 3면에 그의 만화를 게재함으로써 이제 만화는 지면의 한 영역을 차지하며 하나의 장르로 정착하는 출발선상에 놓이게 되었다.¹²⁾¹³⁾

1920년 4월 11일부터 김동성이 그린 만화가 『그림이야기』라는 명칭으로 실리는 것을 비롯해, 글을 동반한 한 컷의 그림이 실리기도 했다.¹⁴⁾ 해외 만화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1920년 5월 31일자에 실린 『애란과 영수상』은 “倫敦데일리익스프레스紙所載”라는 부기로 원전을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의 해외만화는 그 이후에도 지면을 통해 종종 소개되고

11) 이 논문은 김동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만화사의 기틀을 형성했던 1920년대 초반을 살피고자 할 때 그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당시의 만화사는 김동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2) 『동아일보』 창간호에 게재된 그림은 서화를 제외하면 총 6편이다. 김동성을 비롯하여 春谷 고희동, 貫齋 이도영, 靜齋 오일영, 心山 노수현, 정학수가 그림을 그렸으며, 김동성을 제외한 다섯 명은 모두 서화협회 출신으로 동양화풍의 창간 축하를 기념하는 祝畵를 보내온 셈이다. 즉, 김동성과 다섯 명의 화가들의 그림은 애당초 구분되어 있었다.

13) 이 시기 김동성은 만화를 그리는 것 외에도 외국소설을 번역해 게재하거나(『그를 미든 까닭』(全5回), 1920.5.28.-6.1; 『엘렌의 功』(全102回), 1921.2.21.-7.22; 『붉은실』(全93回), 1921.7.4.-10.10.), 기사를 취재하거나 특파원으로 파견되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14) 『흑인의 음악구경』, 1920.8.2.

이 기사는 30일 종로청년회관에서 열린 흑인음악회에 참석한 김동성의 감상기와도 같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동성이 이 기사의 글을 작성하고 그에 걸맞는 그림을 우스꽝스러운 흑인들로 표현한 것은 그가 경험한 흑인 음악회가 포복절도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음악단의 어리광부리는 것은 듯고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리를 붓들고 절도케하였다…”고 쓰고 있다.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출전을 밝히기도 한다. 특기할만한 것은 1920년 5월 31일자 신문의 2면과 3면의 구성이다. 이는 앞으로 만화를 게재할 신문·잡지 매체의 특징을 한 눈에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2면에서는 아일랜드 신페인당이 영국 의회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어난 소요사태를 묘사하고 있다. 이 한 컷의 만평은 신페인당을 폭탄과 봉두(棒頭)를 든 거인으로,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를 거인 앞에 선 난쟁이로 그려 그의 당혹스런 처지를 묘사하고 있다.(그림1) 3면에서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 다시 청춘이 되고 싶은 노인, 장가가고 싶은 총각, 결혼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중년의 부부를 각 칸마다 그린 ‘밭 田 자’ 형태의 4컷 만화가 실려 있다.(그림2) 이 『그림이야기』는 ‘다음엇지’ 이래로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4컷 만화가 다시 등장한 것이기도 했지만, 내용면에서도 세태를 풍자한 쪽에 가까웠다.



그림 1. 『동아일보』1920.5.31.2면. 그림2. 『동아일보』1920.5.31.3면.

한 면은 정치·시사적 상황에 대한 해석, 혹은 비평을 바탕으로 풍자한 만화를, 다른 한 면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평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가져 온 소재를 바탕으로 풍자한 만화를 게재함으로써, 이 두 만화를 통해 지면의 배치를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 『동아일보』의 만화는 한 컷의 시사만평과, 만평 보다는 일상의 유머나 풍자에 중점을 둔 만화로 구분되어 지면에 배치·게재되기도 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창간과 동시에 만화를 게재하긴 했으나 정식으로 만화란이 생기고 꾸준히 만화를 게재하기 시작한 것은 1923년 하반기부터였다. 1923년 이전까지는 만화를 2면 내지는 3면에 간헐적으로 실었으며, 그것도 1921년과 22년에는 신년만화를 제외하곤 찾아보기 힘들다. 근하 신년 만화를 제외하면 1923년 5월 25일부터 3회에 걸쳐 紙齡一千號 기념 현상공모 당선 만화를 게재한 것과 6월10일에 실은 해외만화가 그 재개라 할 수 있다. 잠깐씩 선보였던 만화가 본격화되며 신문 지면에 하나의 欄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현상공모였다.¹⁵⁾ “현대 문제에 관한 풍자화”를 조건으로 내건 만큼 당선작의 내용은 정치, 사회의 시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비평이 담긴 만화였다. 이 ‘풍자화’들은 주로 1면, 2면에 실려 물산장려운동을 지지하거나¹⁶⁾, 악덕지주의 횡포와 착취당하는 소작농¹⁷⁾ 등 다양한 시사 문제를 다루었지만 그 중에서도 총독부의 실정으로 인한 조선인의 궁핍과 강압적 통치에 대한 비판

15) 本月二十五日は 本紙の號令이 一天號에 達함으로 一大記念號를 發行하야 廣히 江湖에 配布할터인데 此機會에 本報의 愛讀諸賢으로부터 左揭의 原稿와 投票를 募集하야 記念號의 光彩를 添하고 兼하야 平素의 愛護를 謝하는 徵哀을 表코저하오니 多數投稿하야써 此舉를 盛케하소서. (중략)

◇ 漫畫(一人으로 數件의 應募도 無效) 現代問題의 諷刺畫에 限한 賞 甲(二件) 金六圓 乙(三件) 『동아일보』 四個月分購讀券 (이하 생략) 『동아일보』, 1920.5.3.

16) 『동아일보』, 1923.5.27.

17) 『동아일보』, 1923.12.23. / 1923.12.24.

을 내용으로 하는 만화가 상당수 게재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919년 3.1운동이라는 예기치 않은 소요사태를 겪은 일본의 통치전략이 ‘문화정치’로 전환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제국 일본은 ‘문화정치’라는 정교화된 통치 방법의 일환으로 조선인들이 발행하는 언론 매체의 허용을 통해 “통제 속에서의 분출”을 가능케 했다.¹⁸⁾ 이렇게 해서 일본은 통제되지 않은 불투명한 대중의 욕망을 분출시키고 그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현상 공모를 시작으로 9월 23일부터 일요일마다 만화가 꾸준히 게재되었으며 12월 1일에는 『동아만화』라는 제명으로 만화가 지면의 한 칸으로 고정되었다.¹⁹⁾ 『동아일보』는 23년 6월 3일, 10일, 17일에 ‘부인과 가정’란을 잠깐 선보였으며, 6월 10일 처음으로 ‘일요호’라는 표제가 달린 첫 일요호를 낸다.²⁰⁾ 일요호 발매로 지면을 증명한 『동아일보』는 5면에 해외만화를 실었고,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요호에 꾸준히 만화를 게재했다.²¹⁾ 이 일요호의 마지막 면에는 독자문단, 지방동요란, 소년소녀란을 따로 두어 독자들이 보낸 시, 소설, 감상문, 동화 및 동요 등으로 채워졌고, 만화는 그 한 칸에 실렸다. 독자투고만화는 아니었으

18) 박현호는 그의 논문에서, 3.1 운동은 곧 일본의 무단통치의 실패를 말하며, 일본은 3.1운동의 경험을 통해 수면 아래 있어 파악할 수 없었던 민심과 지식인의 동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방법, 즉 “통제 속에서의 분출”이 가능한 정책이 바로 언론매체의 발간을 허용한 이유라고 했다. 박현호, 『문화정치期 신문의 위상과 反-檢閱의 내적논리: 1920년대 민간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0호, 대동문화연구원, 2005.
19) 『동아만화』는 1927.9.1일 『만화설명』으로 변경했다가 그 해 10월 16일 사라지게 된다.
20) 이혜령, 『1920년대 『동아일보』 학예면의 형성과정과 문학의 위치』, 『대동문화연구』 52호, 대동문화연구원, 101-102쪽.

이혜령은 이 논문에서 1923년 6월 10일은 총 8면으로 발행되어 8면은 전면광고로 채워졌고, 5~7면이 일요호로 채워졌으며, 보통은 6면 발행하여 5,6면이 일요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1) 이 시기에는 9월 30일에 누락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게재되었다.

나 독자들이 보낸 작품을 실은 지면에 함께 게재함으로써 만화가 독자들에게 빈번히 노출되도록 하였다.²²⁾ 당시만 해도 문예에 비해 만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매일신보』에도 여전히 만화가 게재되지 않고 있었다. 다만, 『동명』에 독자만화를 비롯해 꾸준히 만화가 게재되었고, 1923년 2월부터 김동성이 『만화그리는 법』을 연재했던 전례에서, 만화에 대한 가능성을 짐쳐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5월에 시행한 현상공모를 통해 만화에 대한 독자 반응을 시험했던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독자의 문예열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던 일요호”²³⁾에 만화를 함께 게재한 것은 후에 신설될 『동아만화』란의 준비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23년 12월 1일부터 1면에 게재되기 시작한 『동아만화』란은 그동안 부정기적이었던 만화게재가 정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첫 시도이자 신문 시사만화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특히 이 란이 독자들의 현상공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중성과 정론성이 결합된 만평 고정란을 통해 만화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신문사의 정견이 재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신문사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²⁴⁾

22) 이혜령은 당시 문예에서 독자와 기성문인을 구별짓는 방법 중 하나는 작자의 이름 앞에 주소지인 지역명을 밝히느냐 아니냐의 여부라고 했다.(이혜령, 위의 논문, 115쪽.) 이는 만화도 문예와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보인다.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만화에는 저자의 이름 앞에 지역명을 붙여 독자만화임을 명기해주었다. 9.23~11.4에 게재된 만화에는 지역 및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아일보』에 소속된 기성작가의 것으로 보인다.

23) 이혜령, 위의 논문, 102쪽.

24) 물론 이는 『동아일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와 시대일보에서도 『철필사진』과 『시대만화』, 『지방만화』란을 통해 만평을 독자에게 개방했다. (이승희, 『1920년대 신문만평의 사회주의 정치와 문화적 효과』, 『상허학보』22집, 2009, 85쪽.)

3. 주간지 사회면의 가십화 -『동명』

신문에서 『동아일보』가 시사풍자만화를 이끌어 갔다면 잡지에서는 『개벽』과 『동명』이 그 맥을 이어갔다. 『개벽』은 종합지를 표방한 잡지답게 창간호인 1920년 6월 25일부터 만화를 게재하면서 시각적 재현에 각별히 신경 썼다. 폐간되기 직전까지 꾸준히 만화를 게재하기도 했지만, 『개벽』 역시 창간 당시부터 화가인 노수현을 기자로 영입했다.²⁵⁾ 『개벽』이 처음으로 게재한 만화는 다소 긴 문장이 주를 이루고 관련된 그림이 삽입된 형태인 펀치류의 만화였다.²⁶⁾ 이것을 제외하면 『개벽』에 게재된 만화는 그림이 우선되는 형태의 한 컷 만화이며, 주로 개조를 통한 새 시대에의 열망을 그리거나²⁷⁾, 유산계급의 ‘부’의 독식을 비판하거나²⁸⁾, 세태를 풍자²⁹⁾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⁰⁾

25) 「사원명단」, 『개벽』7호, 1921.1.1. 뿐만 아니라 『개벽』사에서 발행한 어린이와 신여성, 아희생활 역시 만화가 꾸준히 게재된다는 점에서 『개벽』사의 삽화와 만화에 대한 관심을 추정해볼 수 있다.

26) 『개벽』1호에 게재된 만화는 글과 만화로 이루어져 있다. 글에서는 문명한 시대에도 구습에 얽매어 상투를 튼 채 돌아다니는 조선인들을 비난하며 겉모습이라도 문명화하길 주장하고 있다. 만화에서는 서양식 양복과 구두를 착용한 사내가 마고자를 입고 상투를 튼 사내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풍자해 글과 함께 게재하고 있다.



大噶生,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개벽』 제 1호, 1920.6.25.

27) 「발랄한 소년의 사」, 1922.8.1. ; 「개조의 물결」, 1923.2.1.

28) 1921.2.1. ; 1922.8.1. ; 「아구! 등골이야! 돈아 사람살려라」, 1925.7.1.

29) 「夜市나? 女市냐?」, 1922.8.1. ; 「형형색색의 경성 학생상」, 1925.4.1.

30) 단, 1925.8.1. 일자에 실린 만화는 기존에 『개벽』에 게재되었던 만화와 달리, 6컷으로 구성되어 각 컷이 다음 컷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구조를 지닌다. 두 부분이 각자 다

그러나 무엇보다 1920년대 초반에 『동아일보』와 함께 시사풍자 만화를 이끌었던 것은 『동명』이었다. 1922년 9월 시사주보를 표방하며 창간된 『동명』은 창간호부터 김동성의 만화를 정식으로 게재했다. 『동아일보』가 창간되자마자 만화를 게재했지만 1923년 6월까지의 이렇다 할 만화들을 선보이지 않았던 것에 비해, 『동명』은 창간된 해인 1922년 9월부터 꾸준히 만화를 게재하다가 1923년부터 서서히 만화수를 줄여 나갔다. 특히 김동성의 『만화그리는 법』 연재를 시작하던 1923년 3월 이후에는 만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³¹⁾ 창간호는 광고를 포함하여 총 24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매 지면마다 그림을 넣어 “보는 즐거움”을 더해 주고 있다. 시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종합주간지를 표명하며 등장한 『동명』은 시각을 자극시킴으로써 무거운 내용이 줄 수 있는 무게감을 상쇄시키고, 타블로이드판의 흡사 잡지와 같은 구성을 취했다.

『동명』은 유달리 독자참여와 재미를 강조한 잡지였다. 창간호 14면 하단에 『독자의紙面公開하는 기별』란을 통해 “어쨌게하면 讀者여러분과 『동명』과의 사이를 興味와 眞心으로 連結할가” 고민한 끝에, “讀者의 自由使用에 맡길” 몇 개의 欄을 만들었음을 공지한다.³²⁾ 그 중 『江湖論壇』란은 “정치·경제·사회·교육·예술·실업 등 온갖 인생생활 상 실 제문제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 개선책을 간결하고 遒勁하고 滋味있는 文體”로 적어 보낼 것, 『大鳴小鳴』란은 “身當한 일이든지 傍觀한 일이든

른 남녀와 여행을 떠났다가 해수욕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내용이다. 이 만화는 1924년에 등장해 흥행에 성공한 코믹스의 영향으로 보인다.

『개벽』62호, 1925.8.1.

31) 『동아일보』와 『동명』에 만화가 게재되었던 날짜가 서로 맞물린다는 점과 그 만화를 게재했던 사람이 주로 김동성 이었음을 고려해볼 때, 이것이 김동성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인지 혹은 각 매체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독자의紙面公開하는 기별』, 『동명』, 1922.9.3. 14면.

지 관청·사회·인물에 대한 大小不平을 諷刺的”으로 적어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³³⁾ 이와 같이 매체의 재미의 강조는 이미 서구와 일본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만화를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동명』에 재미를 부가하고 독자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만화라는 장르를 통해서도 시도되었다. 『동명』은 「懸賞漫畫募集」를 통해 만화를 “特採”함으로써 만화를 통한 여론조성에 이바지하였음을 자평하고 있다.³⁴⁾ 물론 만화를 통한 매체의 대중화(혹은 독자 확보)는 1910년대에 도 있어 왔다. 그러나 ‘다음엇지’에 게재했던 만화는 『동명』의 것과 차이가 있다. ‘다음엇지’가 주로 유머에 초점을 둔 2컷 이상의 만화였다면, 『동명』의 만화는 세태비평과 시사풍자를 내용으로 한 1컷짜리 카툰이었다.³⁵⁾ 이는 「懸賞漫畫募集」에서도 재차 확인되는 바, 오락만화가 아닌

33) 그 외에도 『동명』은 이 모든 것을 보낼 때 “문장이 平易하고 趣味있고 輕妙脫略”을 전제하고 있다. 「독자의紙面公開하는 기별」, 『동명』, 1922.9.3. 14면.

34) 「懸賞漫畫募集」, 『동명』, 1922.12.10 8면.

◇ 문자이상으로 文字의 效用을 奏하고 言論以上으로 言論의 權能을 揮하는 것은 漫畫을시다.

◇ 우리 『동명』이 漫畫로써 紙上의 重要な 部面을 作하여 斯界未曾有의 特採를 모한 것은 定評이 自任한바외다.

◇ 今에 漫畫의 趣味와 適切取材의 範圍를 日층 深廣케하여 漫畫世界의 開拓擴張을 天下로 與共할양으로널리 江湖를 向하여 懸賞募集을 行하기로하였습니다.

◇ 종류는 興味中心으로하여 政治社會의 諷刺的表現에 應하는것이면무엇이든지다 좇습니다.

◇ 題目,材料,長廣은 總히 作者의 自由로하실것입니다. …(중략)

◇ 當選揭載된 것에는,賞金壹圓以上拾圓以下를 揭載後二週日以內로送모합니다.

35) 우리나라의 경우, ‘만화’라는 용어의 개념이 중첩되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만화’를 ‘카툰(Cartoon)’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한 컷 양식의 카툰을 비롯하여 코믹스,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등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양식을 만화로 범주화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카툰을 “16세기에 성립한 것으로 생각과 과장을 통한 그림을 바탕으로 익살과 해학, 풍자를 기본 요소로 하며, 주로 신문·잡지에 게재된 그림”으로 그 의미를 한정시키고자 한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한 컷짜리의 만화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은영(2012), 위의 논

만평이나 풍자만화를 게재함으로써 『동명』은 민족주의적 편집경향이 두드러진 정론지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고³⁶⁾, 동시에 만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견을 대중화하고 여론화할 수 있었다.

한편,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월간지나 주간지의 특성상 정보의 동시적 유통이 아니라 정보를 재처리하는 해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³⁷⁾, 만평은 대상에 대한 작가 나름의 분석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정보의 순차적 유통을 보완하는데 주효했다.

1919년 3.1운동을 통해 드러난 대중의 응집력은 제국 일본의 입장에서 식민지 통치 정책을 ‘문화정치’로 변화 시키는 계기로 작동하는 한편,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는 군집된 형태로 드러난 대중의 주체적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총독부는 민간지 발간을 허용하게 되었고 십여 건이 넘는 발행 신청이 몰렸다.³⁸⁾ 총독부는 병탄이후에도 1907년 제정한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선에 언론이 만들어지는 것을 극히 경계했다. 한국인들에게 적용한 신문지법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허가제’로 묶어둔 반면에 일본인들에게 적용한 신문지규칙은 이를 ‘届出(신고제-주는 인용자)’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한국 안에서도 일본인과 한국인에게 차별적인 법률을 적용했다.³⁹⁾ 그런데 ‘문화정치’를 표방한 1920년이 시작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이 발행되었고, 그 해 5월 『개벽』이 창간되자 언론의 자유가 허

문, 102-105쪽 참고.

36) 정진석은 『동명』이 “국학관계 논문을 연재하고, 창작 문예작품의 게재와 함께 외국 작품을 소개하는 등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격조 높은 종합지이자, 민족주의적인 편집 경향이 두드러진 매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2. 413쪽.)

37) 이경돈, 『1920년대초 민족의식의 전환과 미디어의 역할: 『개벽』과 『동명』을 중심으로』, 『史林』23호, 수선사학회, 2005. 30쪽.

38) 정진석, 위의 책, 401쪽.

39) 정진석, 위의 책, 310쪽.

용되는 듯 보였다.

『압박한 그 다음은』(그림3)은 문화정치를 시행한지 불과 2년 만에 터져 나온 것이다. 총독부의 민간지 허용은 표면적인 유화책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신문지법 제 4조에 명시된 ‘보증금 3백원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 시사 정치를 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문제는 보증금 3백원의 경제적 금액이 아니라, 총독부가 ‘보증금 300원의 납부’를 허락했다는 점이었다.⁴⁰⁾ “聲音文字”로 표현되는 언론기관은 이미 일본의 언론탄압으로 가득이나 목구멍에 붙어 겨우 숨을 쉬며 연명할 지경이다. 표면적으로는 조선의 언론을 허용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중장치를 갖추어 놓고 있었다.

1922년 9월 12일자로 『개벽』, 『조선지광』, 『신천지』, 『신생활』이 신문지법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조선 언론계의 고무적인 일이었다.⁴¹⁾ 그러나 조선 언론계의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일본은 1922년 11월 『신생활』과 『신천지』의 『로서아혁명 오주년 기념』과 『일본위정자에게 여하노라』라는 글을 핑계 삼아 언론탄압을 자행하였다. 이 필화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총독부에 의해 기획된 사건이기 때문이었다.⁴²⁾ 『일본위정자에게 여하노라』가 조선의 독립을 주장했다는 사법부의 주장은 근거가 매우 희박한 것이었으며, 게다가 언론검열의 주무관청인 경무국이 아닌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서 이 사건을 직접 다루었다는 점⁴³⁾은 조선인 언론에 대한 총독부의 불가방침을 재확인하는 일에

40) 장신, 『1922년 잡지 新天地 筆禍事件 연구』, 『역사문제연구』 제 13호, 역사문제연구소, 2005, 324-326쪽.

41) 『잡지사종허가』, 『동아일보』, 1922.9.16.3면; 『言論界의 新機運 四雜誌의 新許可』, 『동명』, 1922.9.17.

42) 신천지 필화사건이 신생활 필화사건과 더불어 모종의 효과를 노리고 기획된 것으로 보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신(2005)를 참고하였다.

43) 장신(2005), 위의 논문, 3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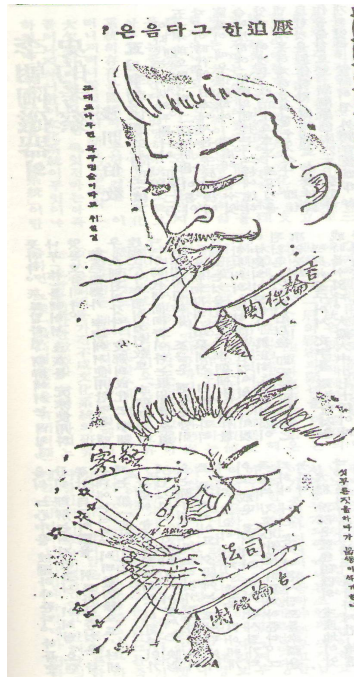


그림 3. 『동명』, 1922.12.10.

언로를 틀어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며, 더 큰 문제는 “압박한 다음?”에 올 상황이다. 조선인 언론인들이 보았을 때 총독부가 언론에 가하는 압박은 불필요한 것이며, 오히려 만평에서처럼 폭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증기가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 발산될 구멍만 트러막는 것은…축약된 증기의 무서운 팽창성·밀폐된 증기의 무서운 폭발력”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⁴⁴⁾ 몇

불과했다. 『동명』이 “첫부른 짓을 하다가 불뚱이 튈다”고 말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⁴⁴⁾ 사법권은 입을 틀어막고, 경찰은 코를 막아버림으로써 목구멍에 위치한 언론은 말을 하는 것은커녕 숨 실 수조차 없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만화를 게재하기 일주일 전인 12월 3일 사설에서 이미 주장해왔다. “열이 점점 오르고 증발이 점점 대단해야 하는데 김나오는 것이 성가시다하여 그 安全瓣을 꼭 잠그고 그 ‘파입’을 꼭 트러막는다면 그 汽罐에 닥쳐오는 운명이 엇더한 것일줄은 생각만하야도 소름 끼칠일”이다. 그것은

44) 이 당시 신천지, 신생활 필화사건에 대해 여론을 모으고 당국의 가혹한 언론계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간구하기 위해 언론계, 법조계가 회합을 가졌음을 보도하는 등, 동명은 두 잡지의 필화사건에 날을 세우고 있었다. 『言論壓迫에 對하여 輿論이 沸騰』, 『동명』1922.12.3.10면.

45) 『언론은 압박할수있는것인가?』, 『동명』, 1922.12.3.3.

달에 걸쳐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계와 여러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동명』 역시 민첩하게 대응했다.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기사를 재차 해석하고 정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만평으로 재처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지루함을 상쇄시킬 수 있었다. 또한 독자의 관심은 재차 환기되는 과정을 통해 언론사의 정견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곧 여론의 형성을 가시화하고 동원함으로써 식민당국을 역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다.

시사주보인 탓에 놓친 정보의 신속성을 만화 배치를 통해 유머로 만회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었다. 『동명』은 이 점에서 만평이 가지는 풍자적 기능을 더욱 강화시켰다. 만평이 가지고 있는 풍자의 기능을 사회면에 접목해 사회면을 보다 가십의 읽을거리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가정 관련 기사, 지방소식, 국외기사 등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기사를 대중화했다.⁴⁶⁾

『「모히」로 殺妻自盡』(그림4)는 모루히네에 중독된 자산가 부부가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하다 남편이 아내를 칼로 죽인 뒤 남편 역시 자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⁴⁷⁾ 사회면에 나온 사건 기사 중 하나를 한 컷의 만

46) 범죄, 가정 등의 기사에 그림을 도입한 것이 『동명』이 처음은 아니다. 1910년대 『매일신보』에서도 드물지만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매일신보』, 1915년 6월 24일.

47) 『「모히」로 殺妻自盡』. 본적안성군읍내면동리에 사는 최동준은 그의 처 리성녀와 가티 시내봉내정일정목 심상기의 집에 류하든바 그들은 원래 재산가로 「모루히네」에 중독되어 고생하든터이나 독을 고치지 못함을 비판하고 그 죄가 너에게잇느니라에

화로 그려 덧붙인 것으로, 서로를 원망하는 내용을 자막에 담고 있다. 『동아일보』는 『동명』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전인 9월 10일자 3면에서 이미 기사화했다.⁴⁸⁾ 앞선 신문에서 상세하게 보도된 기사를 재생산해야 하는 『동명』은 이 기사를 간략화하는 대신 만화를 삽입하였다. 그 결



그림 4. 『동명』. 1922.9.17.4면.

과 일차적으로는 사건을 시각화하여 눈에 띄는 효과를 주었으며, 사건의 핵심이 간략화된 그림과 자막을 통해 이미 기사를 알고 있는 독자에게는 만화가 주는 유머를 이용해 흥미를 유발시켰다. 『동명』은 시사주간지로서 신속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을 만화를 활용해 극복하고,

게 업느니하며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지난 九일 오전 六시에 그 남편되는 최동준이가 단도로 리성녀를 찔러죽이고 최가도 자살하였다. 『동명』, 1922.9.17.4면.

48) 『殺妻後에自殺』, 『동아일보』, 1922.9.10.3.

“모루히네”중독한 자가 안해를 죽이고저도 죽어

안성군 읍내면동리 오백구십오번디에 사는 최동준(38)과 그의 처 리성녀(37)는 몇칠 전부터 시내봉래명 일명목구십오번디에서 하숙옥영업을 하는 심상기의 집에 류하든 바 그들은 원래 상당한 재산이 있스나 “모루히네” 중독에 걸리어 고생하는 티임으로 그 중독을 곳치기 위하여 전과와 갓치 경성에올나온터인데 작구일 오전 여섯시경에 전과 최동준은 돌연히 품에 품고 다니든 단도를 꺼내여 문저자과 안해의 배를 세 번이나 찔너서 그만 방바닥에 혼도식히고 그 다음은 또 자과의 배를 찔너 그도 무참히 방바닥에 혼도되엇는데 방바닥에는 선혈이 림리하여 비린내가 사람의 코를 찌르며 또 벽에는 혈서로 쓴 자세히 알아볼 수 업는 유서가 잇는데 주인은 안방에 잇다가 객실에서 무슨 이상한 소래가 남으로 급히 쫓여나가본즉 전과와 갓흔 무참한 광경임으로 즉시 이사실을 본명서에 보고하였는데 동서에서는 경관과의사가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동시에 즉시 그 피해자를 “세부란스”병원으로 보내여 응급 치료를 행하는 중인바 원래 중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다시 소생할 희망이 업하며 원인은 정신에 이상이 생겨 그와갓치 무참한 일을 한 것이라더라.

담론 형성과 전파에 주력하는 잡지 편제를 유지해 나갔다.⁴⁹⁾ 그러나 무엇보다 『동명』은 시사주간지로서 사회 문제를 가십화시킴으로써 모루히네의 문제에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것을 공론화시킬 수 있었다.

『동명』은 당대 여러 신문들의 부수를 누를 정도로 2만 여부를 발간하여 ‘동명bum’을 일으킬 정도였으며, 이러한 『동명』의 특색은 『시대일보』로까지 이어진다.

4. 표상된 이미지로 폭로되는 문화정치

4-1. 문화정치에 은폐된 민족적 차별

문화정치를 수립한 하라 다카시(原敬) 정부는 문화정치 정책의 일환으로 내지연장주의, 즉 동화주의를 식민지 통치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조선도 내지도 모두 동일한 제도를 펼칠 수 있다고 믿으며, 즉 행정상, 사법상, 군사상, 그 밖의 경제, 재정, 교육지도에 있어서도 동일하여야만 한다.……지금 조선인의 상태를 살펴보니, 스스로 내지인과 동화하려고 하여도 어떠한 면에 있어서도 동화할 수 없는 근본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선을 통치하는 원칙으로서 내지인과 동일과 주의(主義)·방침을 근본정책으로 정하여야 한다.……결국 조선을 내지와 동화시키는 방침으로 제반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가장 현재의 적절한 조치이며, 이는 또한 합병의 목적도 이로써 달성하는 것이다.⁵⁰⁾

49) 이경돈은 시사주간지였던 『동명』이 동시적인 보도의 분량이 적고 연작 논설과 논문, 소설 등이 우세해 오히려 담론 형성과 전파에 주력하는 잡지 편제를 취함으로써 1920년대 초반 민족담론의 전면화에 선편을 짤 수 있었다고 말한다.(이경돈, 위의 논문, 33-34쪽.)

50) 原敬, 『朝鮮統治私見』, 『齋藤實關係文書』.(김대환,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와 경성

다카시 정부의 동화주의는 행정, 사법, 군사, 경제, 재정, 교육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조선인을 가르치고 이끌어 그 행복과 이익을 증진하고, 장래 문화의 발달과 민력(民力)의 충실에 따라 궁극적으로 정치상·사회상의 대우도 내지인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¹⁾ 사이토는 『동아일보』와의 대담에서 “풍속·습관·언어 등에 관하여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 간의 온건한 발전에 노력하여 인심이 沈靜하기를 切望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식민통치의 안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기만적인 정책일 뿐이었다.⁵²⁾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시사만평을 통해 문화정치의 허상을 폭로해 나갔다. 이들이 민족적 차별이 드러나는 만평의 소재로 주로 삼은 것은 여행, 위생, 봉급과 같은 식민지 조선인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것이었다.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영역에서 일본의 통치 정책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공감함을 형성하고 현실의 비애를 환기시키고자 했다.

그 가운데 봉급차별 문제는 생활고와 물가난에 지친 식민지 조선인들의 불만을 더욱 전면화시키는 기제였다. 1920년 초, 총독부 관리의 조선인 채용과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봉급차별철폐도 시도되었다.⁵³⁾ 그러

일보』, 경주대학교 논문집 17호, 2004. 210쪽 재인용.)

51) 朝鮮總督府官報, 1919.9.4.

52) 언론집회의 취체정도도 지금과 같이 인심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난처하지만 하여간 취체방법만 完定되면 상당한 정도까지 허용할 예정이며, 사회문제에 관해서도 연구하겠다. 신청만 있으면 집회도 허가하겠으나 공개한 연설은 당분간 불허하겠으며 신문잡지 등의 발매금지도 가급적 일선구별이 없게하고자 하나 집무상장애가 되는 기사에 관하여는 부득이 한 것이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위선일월일일부터 영어과의 시간증가를 단행하였고, 의회에서 예산통과되면 개정을 통해 내지와 근접케하고자 하며 소학교도 三面에 一教壇균으로 설치코자하니 第一은 경비문제요 第二는 교육문제다.……(『동화의 의미를 불가해 齊藤總督談』, 『동아일보』, 1920.4.1.6면)

53) 김대환, 위의 논문, 211쪽.

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그림5. 『동명』, 1922.11.26.10면.

경성부에서 영업하는 인력거들은 대부분 일본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조선인과 일본인 차부의 봉급 차별은 “삭전은 일본 차부에게는 十분의 七이요, 조선사람에게는 十분의 六밖에 아니주어 인력거차부에게까지도 조선사람과 일본사람을 잘하 분배의 차별이 잇서서” 불평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삭전을 이할오분이나 떨어뜨린 당국의 조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여도 기각당했고, 일본인 경영주에게 사정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그림5).⁵⁴⁾ 이러한 차별은 공적인 직위를 보장받은 순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54) 『賃金과 分配의 不平으로 車夫의 同盟罷業』, 『동명』, 1922.11.26. 10면.



그림6. 『동명』, 1922.11.5.10.



그림7. 『동명』, 1922.12.355)

『조선인순사의 悲鳴』(그림6)에서 조선인 순사의 배고픔은 차별에서 기인했다. “일본인 순사는 초급이라도 본봉(本俸)이 사십원이요, 가봉십사원, 사택요십여원을 합하여 칠십여원인데, 조선인순사는 본봉 삼십오원에, 가봉(加俸)을 합한대도 사십원밖에 아모것도 생기는 것이 업”었다. 조선차부며 순사며, 겉으로는 일선인차별철폐(日鮮人差別撤廢)니 무엇이니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차이를 두었다. 차별은 성차나 직급, 학력에 상관없이 전방위적이었으며, 그러고도 일본은 “네나내나갓다한 다.”⁵⁶⁾ 그러나 ‘문화정치’ 시행 초기부터 “조선인의 상태가 동화할 수 없

55) 『쓰레기는 어찌해』, 『동명』, 1922.10.15. 11면. 『大鳴小鳴』 코너에 나온 기사 내용과 같다.

56) 기다란군도(軍刀)바람인지, 붉은텍와금단추함인지, 예사로해버리는 말한마디라도, 두는 사람의 감정을 폭폭도두는, 경관나으리들도, 그 내막을 아라보면 어느정도 까지 동정할 점도 업지아니하다. ……아음갓기야갓지. 양복입고칼차고, 구두신은게야, 또조선총독부도 순사란직합이야. 하지마는 배가곱흔데야어찌하나. 복장도 직함도 무슨소용이 잇슬가. 요새 경무국에서는 일본순사에게는 엇지할지 자세히알수 업스나, 조선순에게는, 그 박봉에서 오히려 오원을 감한다는 말이잇슬오로, 경관의 신경은 매우예민하야져서, 종래부터 품고오든 모든 불만불평은 새삼스럽게 쏘다져나온다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실시된다하면, 얼마나 가련한 노릇일가. 차별도분수가잇지

는 근본적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하라 다카시의 차별적 시선에서 이미 동화주의 정책의 모순은 내재되어 있었다.

한편, 1910년대 내내 총독부는 불결한 조선의 청결활동을 정례화·제도화하면서 조선인들의 일상생활과 생활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해 왔다.⁵⁷⁾ ‘위생’의 강조는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시혜’로 포장되어 식민지 통치권력의 헤게모니 장악 과정 속에서 ‘위생’을 통한 위계화 작업이 교묘하게 작동되고 있었다. 『塵埃가 山積하는 京城府의 街路』(그림7) 기사는 ‘위생’이라는 코드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총독부의 식민화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인구 30만이나 되는 경성에서 모든 조선인이 깨끗할 수는 없지만 “위생시설이라고는 가가호호에 진애상(塵埃相)을 맨들어노라고 야단야단하야 그와가티 설치하얏고 위생당국의 설비로는 공동변소밖게는 업”는 실정에서 “조선인은 위생사상이 없다”고 말하는 일본 당국자의 말은 그 진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는 것이다.⁵⁸⁾

절반식이나넘어과하지아니한다. 갈치 쑤치가튼군도(軍刀)기력이가조곰잘바진들, 봉급은만하도관계찬을터인데, 고것도아까 단말인가. (『조선인순사의 悲鳴』, 『동명』, 1922.11.5.10.)

57) 권기하, 『1910년대 총독부의 위생사업과 식민지 ‘臣民’의 형성』,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0.2.

58) 쓸에기는 쓸에기통에 분요(糞尿)는 변소에야 누가아니버릴가.……분요를 실은 마차가 대로상을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은 아주 용서한다할지라도 무슨 까닭에 쓸에기통에 싹타못하야 골목골목이 쓸에기천지가 되게하는가 길가는 사람으로 하야곰 눈과 코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하니 그건 처 주민은 어 썩타할가. 이러면서도 위생당국은 조선인은 위생사상이 업다고 썩썩한 수작을 하면서 남의 일가티보니 언제 까지고 이모양으로 가다가는 필경 진애로 경성은 파무칠 것이다. 위생당국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나 조사는 나중으로 밀지라도 위선 산가티 싸힌 汚穢物을 빨리 치우게나 하라는 것이다. 조선사람은 위생사상이 업다는 말은 어느 입으로 나오는 수작인지 알고자하는 바이지만 (『塵埃가 山積하는 京城府의 街路』, 『동명』, 1922.12.3. 10면.)

4-2. '순사'로 표상되는 문화 정치의 희화화

정권에 대한 불만을 조롱과 풍자로 표출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권력이 더욱 강압적일 때 그것을 표상하는 이미지를 통한 풍자가 활발해진다는 점이다. 총독부의 문화정책의 모순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봉급차이에서도 가시적으로 드러났지만, 허울뿐인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져갔다.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정책 변화를 주장했지만, 사실은 “조선을 거미줄치듯이”하고, “경무당국은 경찰을 위한 민중인지 민중을 위한 경찰인지 그 까닭을 알 수 없게 되었”을 정도로 통치의 강압은 여전히 서슬 퍼렇게 남아있었다.⁵⁹⁾ “행정, 사법, 군사, 경제, 재정, 교육 지도에 있어 모두 내지와 동일해야 한다”는 동화정책은 경무기관과 교육기관의 수를 비교해보더라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⁶⁰⁾ 게다가 “무단의 거두인 데라우치(寺內) 시대에 비해서도 경비는 두 배를 넘어서”고 있었는데, 이제야 150만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문제는 인원은 늘리면서 경비만 주리는 이상한 행정방식에 있었다.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하고 부당한 행정의 내막을 알고 싶어도 조선인은 알 수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가는 당국자가 “쉬쉬쉬 다 되는수가 있지”라는 말로 언제나 함구로 대응하는 소통이 부재한 문화정책의 이면을 그리고 있다.

이 이상한 소통방식이야말로 큰 칼을 옆에 차고 콧대만 높은, 거들먹

59) 『警察費減縮設』, 『동명』, 1922.12.3. 10면.

60) 1922년 12월 3일 현재 조선의 경무기관을 보면, 경찰부가 13, 경찰서가 251, 경관주재소가 2366, 파출소가 154이며, 경관 총 수가 18,744명에 이르렀다. 반면, 조선의 학교 수는 보통학교가 715, 고등보통학교가 17, 여자고등보통학교가 7, 전문학교가 6, 실업학교가 29, 기타 잡종학교수가 30 개로, 경무기관과 교육기관을 비교해볼 때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총독당국의 성의가 那邊에 있는가를 응히 알 것이다.(『警察費減縮設』, 『동명』, 1922.12.3. 10면.)

거리는 순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그림8).⁶¹⁾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순사는 덩치만 컸지 하는 일이 없다. 도적이 순사의 가랑이 사이를 통과 해도 순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높은 계다짜과 큰 덩치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우고 유유자적 껌연을 만끽하는 순사의 표정을 보면, 도적이 활보할 수 있는 이유가 굳이 순사의 큰 덩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계다가 이들은 때로는 큰 칼을 옆에 차고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기도 했다. <그림 9>는 지나가던 순사가 길에서 소변을 누던 조선인을 보자⁶²⁾ 발길로 차 개천으로 떨어뜨렸다는 목격담을 만화로 그리고 있다.



그림8. 『동아일보』, 1923.12.6. 1면. 그림9. 『동아일보』, 1923.10.7. 6면.

61) 呆然生, 『이러니까 발치가 안벨수밖에 강도의 流行』, 『동아일보』, 1923.12.6. 1면.

62) 『동아일보』, 1923.10.7. 6면.

길에서 소변을 누면 벌금이나 댈지말든지 제자의 대로할것이지 술취하고 정신없는 사람을 발길로차서 김흔개천에떠러트리면 엇저잔말이냐(지난십팔일밤송현동보성전문학교압해서본바)

“요보이노마 구농기루에소뎡이무슴의리가잇나”

법을 어겼다면 “벌금”을 물리면 될 일인 것을 굳이 “요보”라 칭하며 발길질을 한 것은 순사의 의중을 의심케 한다. 특히 조선인에 대한 순사의 차별적 시선은 조선인과 내지인을 차별하는 당국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조선인에게 행한 순사의 행악이나 인권유린의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⁶³⁾ 전라남도에서는 청결검사를 나간 순사가 천정에 걸어둔 갓집의 먼지를 털지 않았다는 이유로父子를 구타하고 결박하여 아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도 발생했다.⁶⁴⁾ 순사의 패악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주재소에 있던 다른 순사마저 부자의 구류를 반대할 정도였다. 형태는 다르지만 헌병의 강압 역시 위협적이었다. 鐵笑라는 작자가 보기에 인민을 대하는 태도는 헌병이나 순사나 매일반이었다.⁶⁵⁾

이처럼 순사의 위압적인 태도는 『동아일보』와 『동명』의 〈사회면〉에서도 자주 보도되는 주제였다. 순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직업의 특성상 최일선에서 제국의 식민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하는 직위였고, 그로 인해 대중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이 많았던 이유일 것이다. 즉, 순사는 총독부의 정책을 민중에게 가장 가깝게 실현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민중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권력이기도 하다. 일본 공영사관 설치 때 처음 들어온 순사는 처음엔 한국에 부임한 일본 관원

63) 『成川巡査가 良民을 不法毆打』, 『동아일보』, 1923.9.23.3면.

64) 『순사의 인권유린』, 『동명』, 1922.9.17. 5면.

전라남도영암도포경관주재소순사 김준구는 지나간 오일에 그곳 북일종면원항리로 청결검사를 갔다가, 그동리최령숙이가 천정에 걸어둔 갓집의 먼지를 아니털었다고 최령숙에게 갓집을 들메여가지고 조리를 돌리매 그 장남인 최규현은 차마 자기 부친의 봉욕을 볼 수 업서서 대신하겠단한즉 돌리어 그 아들까지결박하여, 부자를 함부로 두다리느니라, 이것을 본 그 둘째아들 최규홍이가 순사에게 좀 반항을 하였더니 이놈들은 모다 위협사상을 가졌다고 무수히란타할 뿐아니라, 심리나되는 주재소로 끌고가서 구류를 하라다가 일순사의 반대로, 민가에쉬우게하였는데, 최규현은 대단히 중상한데다가, 입으로는 토혈까지하여거의 죽게되었다고.

65) 鐵笑, 『둘러치나메어치나 헌병의 행악이나 순사의 행악이나』, 『동아일보』, 1922.9.24.5면.

의 생명 보호와 치외법권 수행을 위해 배치한 것이었지만, 병탄과 함께 그 세력을 더해갔다.⁶⁶⁾



그림10. 『동명』, 1922.10.22.8.

순사를 표현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허리에 찬 칼이다. 『萬里同風』(그림10)은 조선인 촌로와 아이의 대화가 자막으로 제공되어 있는 한 컷의 만화이다. 촌로가 아이더러 “이 마을에서 가장 큰집이 어디냐”고 묻자, 아이는 순사주재소를 가리킨다. 이어,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아이는 “이 집에 있는 칼 찬 사람”이라 대답하자 촌로는 아이의 말에 끄덕인다.⁶⁷⁾ 老少를 막론하고 조선 땅에서 느끼는 순사에 대한 감각은 동일하다. 순사의 칼은 마치 다리가 세 개인 듯 보일 정도로 순사의 다리길이 만큼 길게 그려져 그 위상을 실감케 한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소설에서는 칼 소리가 순사의 등장을 알리기도 할 정도로 순사의 위압적인 분위기는 ‘칼’만으로도 표상이 가능했다.⁶⁸⁾

66) 일본인 순사가 조선에 들어오게 된 배경과 애국계몽기의 순사에 관한 표상과 인식에 대해서는 다지마 테쓰오, 『근대계몽기 문자매체에 나타난 일본/일본인표상-신문매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12. 61-70쪽 참고.

67) 『萬里同風』, 『동명』, 1922.10.22.8면.

68) …그 뒤를 떨어 나온 안동익은 창구녕으로 마차안을 들여다보면서 “고수계군인가”하고 급히물었다.“그래날세”하고 대답하는 음성은 다시 의심할 것 업스매 곳구하여 내

‘문화정치’로 포장되었지만 은폐된 식민정치의 폭압은 “큰 칼”로 표상되었고, 그것은 곧 폭력의 도구를 표상하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도구인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순사는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치안의 유지와 안정을 도모해야할 경관이 오히려 모루히네에 중독되어 “총독부의 대정신을 본받아” “관민일치”를 실현한다는 비아냥도 서슴없이 드러내기도 했다.⁶⁹⁾ 경관의 부도덕을 “관민일치”라는 식민당국의 정책에 대입해 정책의 허상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날이 늘어만가는 조선인 모루히네 중독자에 대한 취체가 방만한 총독부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다. 1910년대부터 늘어만 가던 모루히네 중독자가 극에 달해 “민족적 자멸”을 걱정해야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행정당국은 “괴질” 퇴치에만 전념하고 있다. “위생담론”이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던 것을 보면 모루히네를 방관하는 총독부의 저의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고자하였스니 이때에 벌서 호각소리를 듯고 사방에서 모여드는 순사의 칼소리가 절
그럭々々々하는지라 그는 별안간 수단을 생각하여 비조가치 어자대우에 올너안지
며…(閔牛步, 『무쇠탈(90)』중에서, 『동아일보』, 1922.4.3. 4면.)

69) 『煙針의 官民一致』, 『동명』, 1922.10.8.5면.

근년에 이르러 조선전도에 『모루히네』중독자는 나날이 늘어가는 모양이다. 최근에 보도된 바로보드라도 해주지방의 중독자는 실로 삼백명에 달하였고, 경찰서에서 구류에 처한자가 이백여명이라하며, 경성 시내에서도 며칠전에는 대낮에 길가에서 격 굴어져죽은 사람도 역시 『모루히네』의 중독자라한다. …그러하나 경찰당국은 괴질 이들어온다고 호랑이를 그려서 썬들줄은 알아도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이 『모루히네』, 민족덕으로 자멸하라는 이 몹쓸귀신가튼 『모루히네』에 대한 취체는 다만한 만할 썬아니라, 광주지방과 가튼대에는 『모루히네』에 까지 관민일치주의라는 총독 정치의 대정신을 본바다, 도청에 까지침입하여 소위경관이라는 자까지 침질을 하게 되었다하니, …그 혼한 制습가튼것으로라도 좀더 엄중히 취체하고 처벌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5. 결론

1920년대 초, 『동아일보』와 『동명』의 만화게재는 우리나라 저널리즘에 만화가 정착하여 하나의 란으로 고정되는 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만화가 고정란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만화가 공론에 개입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만화사 초기 연구에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다. 이 시기는 1920년부터 1923년 말에 이르는 것으로, 이 시기를 분기점으로 이후의 신문 만화는 『조선일보』와 『시대일보』, 『매일신보』에도 영향을 미쳐 붐을 이루게 되며, 그림체 역시 그 이전과 달리 서구 카툰의 영향이 더 강해진다. 이는 이 시기에 『동아일보』와 『동명』에 주도적으로 만화를 게재한 김동성의 영향이 컸다. 그는 미국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1918년 귀국한 뒤 서화협회의 화가들을 대상으로 만화를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훗날, 한국 최초의 코믹스라 일컫는 『명탕구리』를 그린 노수현이나 1930년대 만화를 이끌어가는 이상범이 바로 그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김동성의 등장은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와 잘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3.1운동 이후의 통치정책의 변화와 조선인 언론의 허용으로 인한 민간지의 창간은 다양한 신문의 기획들이 결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문예’, ‘학예’, ‘가정란’ 등이 지면의 한 영역을 구축하는 과정 안에서 만화 역시 지면의 한 영역으로 정착되었다. 이것을 가속화 시킨 것은 『동명』이었다. 『동명』은 사회면에 게재된 기사를 만화로 게재하여 시각을 통한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창간 당시부터 재미와 독자참여를 강조하며 만화를 게재했던 『동명』은, 시사주보로써 신속성을 놓치는 대신 유머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지루함을 제거시킬 수 있었다.

1923년 『동아일보』에서 시행한 독자만화 현상공모는 만화라는 장르

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다. 5월에 처음 시도했지만 불과 몇 개월 후인 9월부터 만화가 꾸준히 게재되었고, 특히 상당수의 만화들이 독자 투고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만화가 독자들에게 하나의 장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만큼 만화는 독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즉각적이었다. 또한 현상공모는 독자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미명 하에 언론사의 정견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했다. 문화정치에 은폐된 식민 통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거나 정권을 희화화하였으며, 정치적인 것을 소재로 할 뿐만 아니라 주로 독자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을 다룸으로써 식민당국에 압박을 가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신문·잡지 자료

『동아일보』, 『개벽』, 『동명』, 『조선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보』,

2. 논문과 단행본

로저 새빈, 『만화의 역사』, 글논그림발, 2002.

시미즈 이사오, 『풍자만화로 보는 근대일본』, 소명출판, 2011.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2.

이승희, 『1920년대 신문만평의 사회주의 정치와 문화적 효과』, 『상허학보』 22집, 상허학회, 2008, 77-115쪽.

서은영, 『한국 '만화'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언』, 『인문콘텐츠』 제 26호, 인문콘텐츠학회, 2012, 101-128쪽.

_____, 『코믹스의 기획과 대중화-신문연재만화 <명탐구리>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3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273-304쪽.

_____, 『근대 인쇄문화의 형성과 『대한민보』 '삽화'의 등장』, 『우리어문연구』 제 44호, 『우리어문학회』, 2012, 541-572쪽.

천정환, 『소문·방문·신문·격문: 3·1운동 시기의 미디어와 주체성』,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109-154쪽.

박헌호, 『「문화정치」期 신문의 위상과 反-檢閱의 내적논리- 1920년대 민간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0호, 대동문화연구원, 2005, 199-259쪽.

박용규, 『1920년대 중반(1924-1927)의 신문과 민족운동-민족주의 좌파의 활동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 9권 4호, 2009, 277-312쪽.

이혜령, 『1920년대 『동아일보』 학예면의 형성과정과 문학의 위치』, 『대동문화연구』 52호, 대동문화연구원, 2005, 95-133쪽.

김대환,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와 경성일보』, 경주대학교 논문집 17호, 2004, 203-227쪽.

장 신, 『1922년 잡지 新天地 筆禍事件 연구』, 『역사문제연구』 제 13호, 역사문제연구소, 2005, 319-347쪽.

이경돈, 『1920년대초 민족의식의 전환과 미디어의 역할-『개벽』과 『동명』을 중심으로』, 『史林』 23호, 수선사학회, 2005, 27-59쪽.

Abstract

A Study on popularization of Journalism through Cartoon

-Focusing on Cartoon 『Dong-A Ilbo』 and 『DongMyoung』 in the early 1920's.

Seo, Eun Young(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Cartoon that have flowed into the public Journalism, which the process is related to the analysis of the formation and popularization of planning. Cartoon become gradually through a Colonial-Chosun is to draw attention to the process. Cartoon was still poor in 1910's journalism. But widely on a variety of topics addressed, Colonial Chosun were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spectrum of Cartoon(Comics). Cartoon finally began to form in 1920's Colonial Chosun, because of it was experience facing the Cartoon from 『Mailshinbo』 and ruled Japan's policy shift since 1919. Appointed as a journalist and journalism in the first "Caroon page" trackon in fixed in 1920 years, 『Dong-A Ilbo』. And it was that the 『DongMyoung』 reproduce and led to social problems with Cartoon. In this process, awareness of the colonial politics of intellectuals, led at the time of Journalism, and how the regime formed in the process of forming public opinion through a newspaper and went to shows.

(Key Words : Cartoon, Comic, 『Dong-A Ilbo』, 『DongMyoung』 Image, Representation)

학술대회 발표일: 2012년 11월 3일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 기획발표

투고일 : 2012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2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2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0일 게재확정